

석유사업기금 어떻게 쓰여지나

- 경제기획원 · 동력자원부 -

1. 왜 석유사업기금을 만들었나

우리는 '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었습니다. 또 지난 8월에 뜻밖의 페르시아만 사태로 그동안 배럴당 15~16불에 머물던 국제원유가격이 30불수준을 넘었습니다.

가격이 폭등하였다는 면만보면 제3차 석유파동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많은 나라들이 비축량을 확보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파동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입니다. 이처럼 국제원유 가격이 오르면 기름한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 경제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석유사업기금은 이와같이 국제원유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만들었습니다. 즉 석유사업기금을 만든 주목적은, 첫째 평시에 석유비축시설을 지어 정부가 석유를 비축 함으로써 석유 파동이 발생한 비상시에 석유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둘째 다른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나 석유탐사 사업 등을 벌임으로써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셋째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고, 넷째 여유자금을 확보했다가 원유가격이 일시에 폭등할 때에 완충자금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석유사업기금을 유가완충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국제원유가격의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각종 에너지 관련 사업을 벌임으로써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그 체질

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유사업기금은 제2차 석유파동 직전인 1977년말에 석유사업법에 기금설치근거를 만들어 수입하는 기름값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매겼으나, 1985년말에 국제원유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1986년 5월부터 징수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즉 국제원유가격이 떨어진 금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건네 되었습니다. 국제원유가격이 떨어진 만큼을 곧바로 국내석유가격 인하로 반영할 수도 있지만 얼마 후에는 올라갈 것이 분명한 석유에너지를 값이 쌀 때 마구 소비하는 경제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앞으로 오를 때에 대비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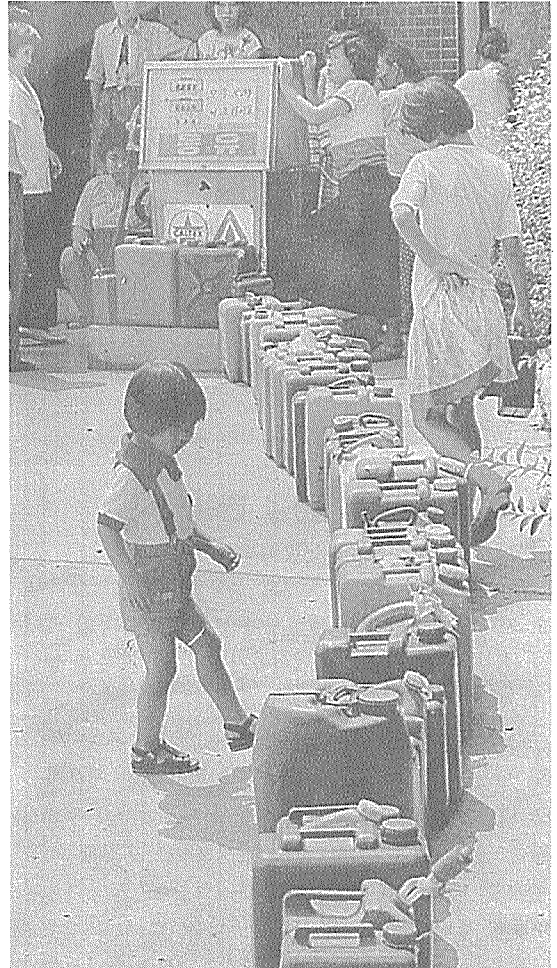
이에 따라 국제원유가 하락분의 일부는 국내유가를 내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일부는 관세율을 높여 정부수입으로 확보하는 한편, 일부는 기금을 조성하여 에너지 비축과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 등을 추진키로한 것입니다.

2. 석유사업기금은 어떻게 걷고 있나

석유사업기금의 대부분은 석유수입업자나 석유정제업자로부터 걷습니다. 기금의 징수액은 국내가격에 반영된 석유가격(현재 국내원유가 18불/배럴, 환율 710원/불을 기준으로 함)과 석유회사가 실제로 수입하는 가격(관세·운임 등 비용포함)과의 차액범위 안에서 산출됩니다. 이같이 산출된 기금 징수액은 동력자원부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국제원유가 하락시에 장차의 상승에 대비하여 어떤 시책을 펴왔나

대만의 경우에는 국영인 중국석유공사가 국내유가와 국제원유가격의 변동차액의 상당부분을 흡수, 제정에 납입하여 에너지 사업을 벌였고 일본은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제원유가 하락시에 관세와 석유세를 올려 그 재원을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이 형태와 방식은 다르더라도 저유가 시대에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제정에서 흡수하여 원유가 상승에 대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석유수입업자(또는 석유정제업자)는 고시된 기금을 석유수입신용장 개설은행에 납부하게 되고 통관할 때 기금 납부 영수증을 내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수납된 석유사업기금은 그 즉시 기금계좌로 입금됩니다.

3. 석유사업기금을 어디에 써왔나

(1) 지금까지 걸어들이 석유사업기금은 얼마나 되는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최고 30불대여서 기금조성액이 별로 많지 않았으나, 1985년 말 이후 국제원유가격이 10불 대로 떨어져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90년 9월 말까지 석유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석유사업기금은 4조 3,456억원이며, 운용을 하면서 이자가 1조 1,219억원이 생겨 총 5조 4,675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총 기금중 73.6%는 '86년 이후에 조성된 것입니다.

(2) 석유사업기금은 주로 어디에 쓰여졌나

석유사업기금은 석유사업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용도(표참조)와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석유사업기금이 쓰여진 곳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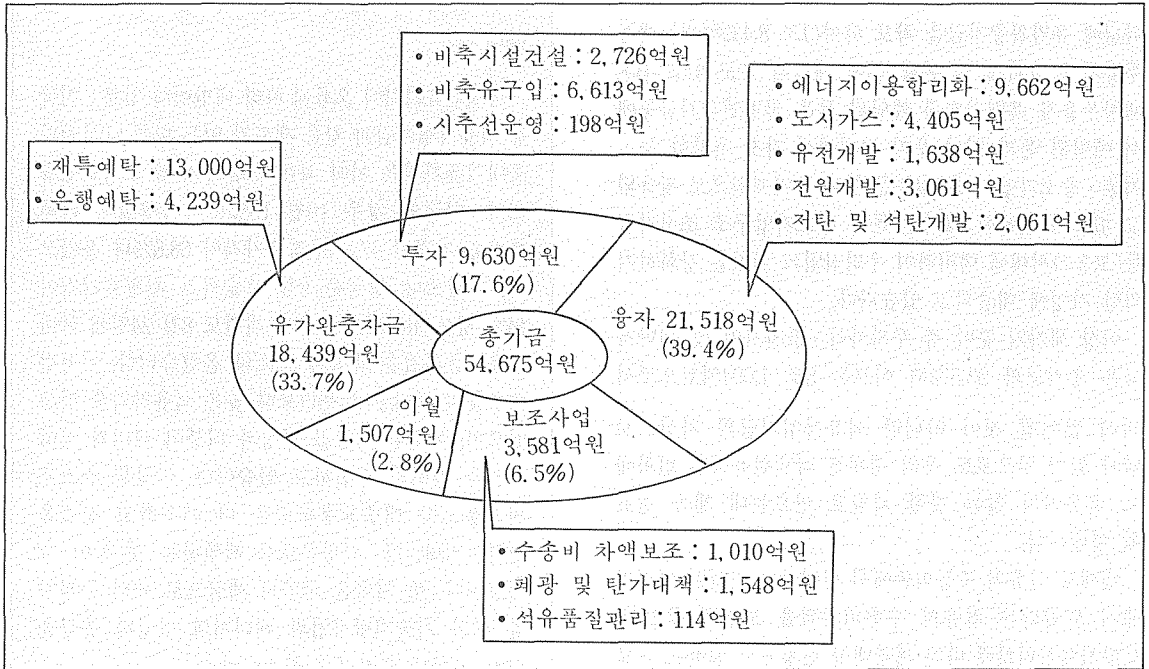
첫째로 1·2차 석유파동과 같은 에너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2,726억원을 들여 석유비축시설을 짓고

석유사업기금 조성액

(단위 : 10억원)

구 분	'79~'85	'86	'87	'88	'89	'90.1~9	합 계
신규징수	1,223	700	823	751	803	46	4,346
운용수익	222	100	170	222	230	178	1,122
계	1,445	800	993	973	1,033	224	5,468

석유사업기금운용실적 (90. 9현재)



원유가 모자랄 때에 대비하여 6,613억원을 들여 약 40일분(38백만 배럴)의 석유를 정부가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석유시추선 운영 및 송유관 건설사업도 추진하는 등 에너지 관련 공공투자사업에 총 9,63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한국석유개발공사 등이 맡아서 하였습니다.

둘째로 종합적인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을 비롯한 도시가스사업, 국내 대륙붕 석유개발과 해외유전개발사업 등에 대한 용자재원으로 2조 1,518억원이 활용되었습니다. 예컨대 4,405억원을 들여 가정에서 많이 쓰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만들고, 9,662억원을 지원하여 주택단열, 산업체 보일러 대체, 지역난방사업에 용자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토록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해외유전을 직접 개발하여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산유국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국내대륙붕 개발에 힘쓰는 등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에 1,638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발전소 등의 건설에도 3,061억원을 용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용자된 돈은 전체기금의 39.4%에 이릅니다. 이 돈은 일정금리를 붙이고 있으며 용자기간이 끝나면 원본이 회수되는 자금입니다.

이와 같은 각종 에너지사업의 투·용자는 금융기관이나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취급하였으며, 철저한 사업검토와 증빙서류에 의하는 등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 졌습니다. 아울러 목적외에 쓰여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 석유의 비축, 수송 및 석유개발사업
- 석유가격안정 및 품질관리사업
- 에너지 소비절약 및 대체에너지 개발 사업
- 도시가스, 석탄산업 및 발전소 건설 사업 등

※ 여유자금의 운용 : 정부의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 금융기관에 위탁등

셋째로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이 국제원유가격이 오를 때 우리경제가 받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에 유가완충자금을 확보 하여(1조 8,439억원)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및 은행 등에 예탁해 놓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된 돈은 국민연금기금등에서 예탁된 돈과 합쳐 우리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농·어촌·중소기업·지하철부문 등에 융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은행에 예치된 돈은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등 고유가시대에 대비하여 우리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출되고 있습니다.

이상 세가지 분야 즉 투자사업·융자사업 및 예탁자금은 총기금의 93.5%에 이르는 5조 1,094억원으로서 써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석유사업기금의 자산으로 남아 있어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국제원유사정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체질로 만드는데 계속 활용될 것입니다.

넷째로 원유의 중동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먼거리에서 도입되는 원유의 수송비차액을 보전해 주었고,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라 폐광대상 탄광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등으로 쓰는 한편, '88년 이후 연탄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탄가대책비 등에 보조(3,581억원)로 쓰여졌습니다.

4. 최근 국제원유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석유사업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 국제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유수입 추가 부담은 얼마나 되나

지난 8월에 폐만사태가 일어나자 국제원유가격은 30불 수준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지금도 폐만 긴장상태가 여전해 원유가격이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90년 7월에 배럴당 14불하던 국내 도입가격평균이 9월중에는 19불을 넘었고 10월중에는 26불 정도로 뛰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폐만사태의 앞날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지금처럼 팽팽하게 맞선다면 고유가 현상은 얼마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이 국제원유가격이 오름에 따라 우리가 더 부담해야 할 원유수입대전은 내년의 경우, 일년에 약 3억

국제원유가격상승에 다른 나라는 어떻게 적응했나

국제원유가격이 오름에 따라 대만이나 일본·미국 등 석유사업기금과 같은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들의 국내석유가격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10월 18일까지 7월말에 비해 휘발유 가격이 47.8%, 경유가격이 68.6%나 올랐으며, 프랑스나 영국은 9월 중순까지 휘발유가격이 14%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대만도 8월 24일에 국내 석유제품가격을 줄잡아 27%나 올렸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보다 높은 석유가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름값 인상과 더불어 에너지 절약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스스로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수단을 더 이용하고 절전을 강화하거나,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또 외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개발사업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0월말까지 9.2%나 올라 한자리수를 위협하고 있는데다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석유사업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유가조정을 아직 단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기름값을 올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9월 한달동안에 이미 약 750억원의 부담이 생겨 석유사업기금에서 보전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석유제품을 제외한 원유도입분만 보더라도 10월에는 대충 1,440억원의 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국제원유가격이 오름폭이 커지면 보전해 주어야 할 돈도 더욱 많아져 유가완충자금이 곧 소진될 전망입니다.

4천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배럴당 1불 상승시에 연간 약 3억 4천만불(원화로 2,450억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지금같이 배럴당 30불이 된다면 현재 국내 석유가격에 반영된 기준원유도입단가 18불보다 원유가격이 12불 올라감으로 연간 약 40억불(340백만불×12)이 더 지불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년 연간으로 원유가격이 평균 30불을 유지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담은 이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2) 국내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는 석유사업기금은 얼마나 되나

지금까지 모아온 석유사업기금 총액은 5조 4,675억원이지만 유가완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전체 기금의 33.7%에 이르는 1조 8,439억원입니다. 이 돈 중 1,200억원은 올해의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바로 쓸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4,339억원은 은행에 맡겼고, 1조 3,000억원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된 돈은 농어촌 및 중소기업지원 등에 용자되고 있기 때문에 돈의 회수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 2,000억원을 계산하여 상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완충을 위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7,000억원을 조금 넘는 실정입니다. (90년 석유사업기금 재원 1,200억원, 재특자금 2,000억원, 은행예탁자금 등)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원유가격 상승폭이 너무 크면 유가완충자금이 곧 없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자금으로 국내유가를 올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제품을 제외한 원유만 보더라도 올 10월 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26불이었기 때문에 국내유가에 반영된 기준가격 18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실분 1,440억원(8불×10월도입량 추정치 25백만 배럴=200백만불, 원화로 약 1,440억원)을 보전해 주어야 하며, 석유제품 수입분의 보전소요를 감안하면 실제 보전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쓸 수 있는 석유사업기금 7,000억원 수준으로는 몇 개월 정도밖에 버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가완충자금은 다 쓸때까지 국내 기름값을 올리지 않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유가완충자금을 조금씩 쓰면서 기름값도 서서히 올리는 것이 좋은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부에서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전부를 유가완충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석유사업기금은 국내석유가격의 안정을 꾀할 뿐만 아니라 석유비축을 통하여 비상시에 석유공급을 원활히 하는 한편, 대체에

너지를 개발하는 등 여러 곳에 쓰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유가완충 기능은 석유사업기금의 설치목적중의 하나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유가완충 기능은 우리 경제가 고유가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며, 국제원유가격이 올랐는데도 줄곧 국내유가를 올리지 않는 것은 기업 및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절약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국내 유가가 싸면 국민들이 유류소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너지소비절약사업과 국내외유전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융자해 준 돈을 당장 회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조성액 전부를 회수해 유가완충재원으로 써서 완충기간만을 늘리는 것은 국민경제에 결코 보탬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석유비축사업이나 유전개발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구조적이고 장기적이고 석유위기에 맞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5. 앞으로 석유사업기금은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

앞으로 석유사업기금은 법에서 정한 목적대로 쓰여질 것입니다. 즉 유가완충을 위해 쓰는 것은 물론이고 석유비축사업과 유전개발사업 등 원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석유사업기금이 없는 선진국들은 이런 사업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 운용방법도 고쳐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날 기금의 운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법태두리 안에서 철저히 운용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의 성질이나 규모로 보아 그 조성과 사용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어나 있을지도 모르는 국민들의 오해나 불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민간기금형태로 운용되었던 것을 정부기금으로 그 운용방법을 바꿔 그 사용내역을 일일이 국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